

와서 보라



청주 스테이크 부장
황 증 열

기독교의 발상지인 이스라엘의 전통적 문화 배경을 돌아보면 기독교는 거의 사색적인 종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관조하는 편이 아니었고 사유하면서 자기 인생을 깨치는 정적인 종교는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전 인류의 구원을 표방하고 사랑의 실천을 그 본질로 삼고 있는 초기 기독교는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종교였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호언 장담하였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의 진리를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는 불필요한 논증만 늘어놓지만 사실상 보여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도 세상에 나아가 서슴치 않고 자신만만하게 민중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고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이며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호히 외쳤습니다.

이러한 초대 기독교회가 헬레니즘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지중해 연안 각 지역으로 전파되자 사색적이고 이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해 비롯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은 이러한 기독교의 전파에 정면으로 도전한 문화였습니다. 당시 철학적인 사유에 훈련된 상층 계급의 지식인들에게는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며 무조건적인 종교로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을 모두 무식하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기독교는 만만치 않는

종교적인 거센 물결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그들의 뇌리에 생생히 살아 있었고 비록 교육받지 못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와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의 영역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복음의 세계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동적이고 단순한 복음의 외침은 소위 유식하다는 상류층의 훈련받은 철학을 빌려 깊숙히 인간의 논리와 추리 속에 파묻히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의 이해와 전파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소위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피비린내 나는 기독교사를 장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와서 보라”는 주님의 외침은 언제나 통쾌감을 주고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허심 탄회하게 따라가서 직접 목격한 자는 누가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였나를 직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복음이 인간의 논리와 철학으로 왜곡되고, 변증되어 버렸다는 사실은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데살로니가후서 참조 2:3)하고 하신 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분의 음성은 그동안의 어두운 장막을 한번에 거두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은 옛날 이 세상에서 보여 주었던 그 진리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말일에 인간의 생각대로만 하도록 버려 두지 않고 예언자를 통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



서울 북 스테이크는 지난 3월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녹번 와드에서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회원 선교 사업을 주제로 한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 순서를 맡은 역원들은 선교 사업의 필요성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요일 오후에 가진 신권 역원회와 토요일대회에서 흥 무광 스테이크 부장은 선교 사업은 자신의 주변을 잘 정돈하고, 모범을 보이며 이웃을 위하여 쏟는 작은 봉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였고 특히 회원들의 출신 수법하는 태도를 촉구하였다. 또한 선교 사업에 관하여 새로 제작된 필름 스트립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의 상영과 주제 발표가 있었다.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스테이크 대회 총회에서 모든 연사는 선교 사업에 대한 간증과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대회를 감리한 이 호남 장로는 선교 사업

이란 가정의 화목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대제사 2명 칠십인 1명 장로 6명이 탄생하였고 이 근혁 형제와 한 민근 형제가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부산, 광주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 부부와 서울 서 선교부의 김 차봉 선교부장 부부가 참석하였다. *

서 전주 지부 초등협회 진 승태 형제 금메달



서전주 지부 초등협회 회원인 진 승태 형제는 지난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전주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교육감 컵 쟁탈전에서 B조 핀급 1위로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

상호부조회 창립 141주년 기념 행사 (강서 스테이크)

강서 스테이크는 3월 19일 오후 4시부터 신촌에 있는 서신학원에서 이도환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3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이도환 스테이크 부장의 영적 말씀이 있었고 제2부에서는 각 와드와 지부에서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었으며 제3부에서는 재능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연극, 무용, 가장 행렬, 그리고 합창등을 발표하여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번 기념 행사에서 최우수상은 물문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분장시키고 나이가 많은 자매들이 참가한 화극 와드가 차지했고 "최초의 상호부조회"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발표한 강서 와드가 특별상을 받았으며 민속춤을 발표한 신정 지부가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아이디어상은 영등포 지부, 협동상은 부천 지부, 의상상은 신길 와드, 애교상은 여의도 지부 인쇄상은 공향 지부 그리고 참가상은 신월 지부가 각각 수상하였다. *

김도필 자매 별세 (한국 최초의 여성 회원)



한국 최초의 여성 회원인 김도필 자매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 20분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향년 78세로 별세하였다. 평소 김 자매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회원들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밤을 새우며 그녀의 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김 자매는 이화 여자 전문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신전에서 신전 의식을 받았다. 영결식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운 와드에서 남영진 부장의 감리로 경건하게 진행되었으며 많은 신전 지도자들과 회원 그리고 유가족이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인의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에 위치한 모란 공원 묘지이며, 이날 묘지 헌납을 김차봉 서울서 선교부장이 해주었다. 김 자매는 별세하기 전에 고별사를 남겨 놓았는데 이날 영결식에서 이재갑 감독이 낭독하여 참석한 회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상호부조회 창립 141주년을 맞이한 각 스테이크의 기념 행사

서울 스테이크



지난 3월 19일 서울 스테이크 삼청 와드에서는 상호부조회 창립 제141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약 2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모임은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었으며 연극, 무용 그리고 연주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찬송가에 담긴 교회 역사를 합창으로 엮어 불러서 이채를 띄우기도 하였다. *

서울 동 스테이크

3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동 스테이크는 용두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창립 141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 행사는 1부 개회, 2부 음식 나누어 먹기, 3부 재능 발표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개회 순서에서 지역 대표인 이호남 장로는 상호부조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이어서 14개 와드와 지부에서 준비한 비빔밥을 나누어 먹었으며 연극과 합창발표 순서가 진행되었다. 모든 와드와 지부가 열심히 발표한 이 순서에서 연극 부문의 최우수상은 "사랑이

있는 곳에"라는 단막극을 발표한 변동지부가 차지했다. 변동지부의 출연진을 보면 70세 이상의 회원을 비롯하여 60세 이상의 자매들이 3명이나 되어 출연자의 평균 연령이 50세였다. 특히 연극 시상에서도 원용 스테이크 부장은 "이 연극은 상호부조회의 참뜻을 살린 기획이었다"라고 했으며,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치하했다. 또한 합창 부문에서는 도봉 와드가 역시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하모니를 잘 이루었다. *

서울 북 스테이크



서울 북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창립 141주년 기념 모임이 3월 12일 토요일 1시부터 녹번 와드에서 열렸다.

홍 무광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한 이날 모임은 제1부, 예배 순서, 제2부, 재능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1부, 예배 순서에서 홍 무광 스테이크 부장은 "상호부조회와 교회 여성의 사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하면서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한 자매들에게 가정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사명의 중요성